

교회 목표

신앙인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중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새, 우리의 선생님

올새가 참새에 달렸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이토록 많은 인간들은
이토록 안정불침묵하며 바쁘게 사는지."

참새가 올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게 분명해.
너와 나를 돌아보 주시는 그분말이야."
제니(J. Cheney)



"영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 6:26).

존 스톱트(John Stott)의 '새(The Birds)'라는 책에 기록된 이 팔복인 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기게 한다. 새들은 한 날 한 날, 출가율으로 하나님께서 배부른 양을 누르고 싶지만, 사람들은 내일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한달, 아니 자기와 자녀들의 평생을 걱정하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듯하다.

지난 수요일에 배시지

"약으로 나아가라" (눅 14:15)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출 14:2),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닷가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라"(14:4) 그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한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출 14:16). 하나님께서는 기밀로 애굽의 완고한 무릎을 꺾어서 여호와의 인정하길 만듦고자 하신 것이다. 그리고 곧,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몰아닥쳤다. 애굽의 막강한 군사적인 힘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바로의 군대를 이렇게 묘사했다. "특별히 복박 속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말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사산보 맞은 편 비하루트 곁 해변 그 광장 친 대 미치니라"(출 14:7-9).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애굽 왕,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열 번씩이나 쏟아 부으셨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전보 다 그 심각한 위기에서 빠져나왔다. 그것은 자비로 애굽에서 당했던 노역과 같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Red Sea)'가 가로 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 따돌아 다. 두루손 기어코 물러갔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빠져나와 바로의 칼날에 죽느냐 하는 목숨이 달린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의 군대가 밀려오는 것을 쳐다보지 마시 두루서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출 14:10).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현실에 대한 탄식과 원망스러움이 가득한 외침일 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대해서 말씀하셨지만(14:4), 그들에게는 언제나 눈앞에 담긴 현실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그래서 기도한 이스라엘의 뜻을 구하는 것만과 그 기르셨던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이다(마 6:10-33).

그리고 십자가 달까지 벌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재차의 탓으로 돌렸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러 애굽에 매장하기를 원하였도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리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곳이 우리에게 좋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리거늘, 우리를 버려 두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보다 낫겠지 아니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지"(14:11-12).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하나님께 고, 모세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바울의 다메섹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

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었지만, 예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너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행 9:4). 예수의 제자들은 핍박한 이들 곧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14:13-14).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어떤 아이였을 때 나팔장 악어의 이빨로부터 자기를 구하신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 그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고, 보호하시며,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만났대(출 3:5-6). 막대기 하나와 출로 된 자신을 불꽃과 일화상으로 애굽의 염구리를 때리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고 말하였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하였다.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이스라엘의 불꽃과 파기를 몰아가는 일은 애굽의 군대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모세의 말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다.

모세도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겠는가? 분명히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필요치 않은 일이었다.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선택만이 필요할 뿐이다. 모세의 말대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하고, 그의 자녀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야 필요할 것이다. 한 경우를 더 나아가 이리하여 그는 애굽과 싸워나간 했다. 왜냐하면 원수가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귀와 타협하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철학자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무기가 없고 가진 것조차 아무 것도 없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한다. 약속의 땅을 위하여 계속해서 나아 가자만 한다.

이리해서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은 일지만, 하나님의 행하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며, 기도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게 한다. 원망과 불평을 쌓아놓으면서 점차 두려움에 빠져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은 정 기도와 두려움 둘다없는 그리스도인들, 천국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허덕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기록과,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너희는 거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한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 된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라.

수요일 예배 · 금요일 시간 변경 10월부터 오후 7시30분에서 오후 7시로

일요일시간이 빨라짐에 따라 10월부터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회를 각각 30분씩 앞당겨서 오후 7시 정각에 드리게 된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예배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예배에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토요일 결혼예식 중지

토요일에 치러지는 결혼예식으로 인하여 주일예배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예배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실시하는 결혼예식을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식을 치르고자 하는 성도들은 평일을 이용하여 주일이 바라며, 충현교회가 더욱더 경건하고 신령하며 철저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신학 칼럼 인류의 삶에 나타난 죄

선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이 땅은 심각한 죄악으로 물들었다. 아내를 향하여 "뱀중의 뱀요 살중의 살"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의 송가는 책임 전가의 원망으로 변했고,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화근이 되어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죽였다.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예전 동산에서 시작된 범죄의 물결기는 악의 골짜기를 타고 강처럼 흘러가기 시작했다. 가인, 에녹, 라벨도 이리저리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고, 쾌락 중심의 삶이 나타나니, 날카로운 기계를 사용하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죄악은 깊어졌다.

사람들은 죄를 방지하지 않고, 법규를 정하여 처벌하기 시작했다. 제책을 가했고, 자유를 제한할 필요에 따라서는 사형에 처했다. 영국에서는 1500년에서 1550년 동안 7만명 이상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했고, 1780년 경의 형법에는 사형에 처해질 350개 이상의 범죄를 규정했었다고 한다. 어디 그런 법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려고 사람을 산 채로 불태우든 장면을 공개하거나 사형자의 머리를 강대위에 매달기도 했단다 하니 얼마나 범죄를 철저하게 다스렸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범죄가 그쳤는가? 최소한 줄어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1·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오늘날에도 전쟁 범죄들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형편이다. '육신이 인생대중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함은 사명을 낳느니라'(골 1:15).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의 과일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지당한지 모른다.

역사에도 도도히 흘러가는 죄악의 물결을 보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으리라'(롬 8:2). 예수님은 계도나 환경 이전에 죄인인 사람을 십자가로 세례를 하셨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악의 물결기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크고 작은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서광진(목사, 2교구지도)

바로잡습니다

주간성경공부 에스더전 : 목요일 19시 30분 교육관 109호로

9월 정기제직회 -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Inspired Warning

(Hebrews 3:7-8)

Therefore, just as the Holy Spirit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AS WHEN THEY PROVOKED ME, AS IN THE DAY OF TRIAL IN THE WILDERNESS"**

The Holy Spirit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as when they provoked Me, as in the day of trial in the wilderness". Isn't it awesome that the Holy Spirit talks to you today? What a great privilege! The Israelites experienced God's wonderful, wonderful grace. He brought them out of slavery in Egypt and called them to Himself. He instructed, warned, and cared for them in every way. He gave them everything they needed. Sadly, their hearts were bad and they continually complained and were unhappy with God's mercy and grace. Psalm 95:10 tells us, "For forty years I loathed that generation, and said they are a people who err in their heart, and they do not know My ways." The natural condition of all human hearts is bad, "The heart is more deceitful than all else and is desperately sick; who can understand it" (Je. 17:9)? Let's open our hearts to hear the Word of God, so that our hearts may be softened and renewed in His grace.

God the Creator made the universe, heaven and earth, and everything in it. He gave the Israelites manna, water, and even quail for their journey to the rest of dwelling in Canaan. They continually complained. Just look at the Hebrews history. You can see all the wonderful facts and evidence of God's grace and the constant rebellion they had against God. The Old Testament shows us how slow God's anger toward them was and how He continually gave them His mercy, kindness, and grace. His patience and

suffering over them was immense. And still the Israelites persisted in having stiff necks and hearts like flint. Because of their selfishness they kept on complaining instead of living in His grace. They steadfastly ignored God's grace and mercy, and finally, received His punishment.

God could not pass over their sins just as He cannot pass over ours. Let's listen to God's voice, the voice of grace and mercy, "For God did not send the Son into the world to judge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Jn. 3:17). The Holy Bible mentions a new kind of life. The Holy Bible is God's words of love toward people. It talks of His Son and gives clear understanding to the Gospel, the way of salvation. But Christians continually go against God. The Bible says, "Therefore,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as though God were making an appeal through us; we beg you on behalf of Christ, be reconciled to God" (2 Cor. 5:20). God wants to reconcile Himself to us. How wonderful is that? Jesus is the only way to salvation, "Therefore brethren, si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Heb. 10:29). Jesus, the sinless Savior, has taken our sins that we might have God's righteousness. Nobody but Jesus can give you rest and life. He's the only one who invites us to His Table. No one can forgive us our sins but Jesus. Only His blood can cleanse us and give us peace.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that has be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12). Jesus is the only name that we can call upon for eternal life.

So, like today's Bible verses say, "Therefore, just as the Holy Spirit says,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Interesting thing is the idea of "today". Today is important. Time is too short. This life is so brief in comparison to eternity. Time passes so quickly on this earth. It is so uncertain. No one knows when God will call their life. Clearly, the Holy Spirit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Come on and listen! "Don't boast about tomorrow, For you do not know what a day may bring forth" (Pr. 27:1). Life is much shorter than you think, "Yet you do not know what your life will be like tomorrow. You are just a vapor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away" (Jam. 4:14). Are you thinking that your goal in life should be success on this earth? Are you seeking fame, fortune, and power? Come on, that's vanity! It only leads you to the grave. Please, listen all believers, whatever the Lord says just do it.

Today's message is God's inspired warning. "Do not harden your heart". This precious caution relates with your eternal soul. It's a fundamental alert that all believers needs to take seriously. Please don't harden your heart. Through His Word, the Bible, your heart will be softened through the Holy Spirit. From His beautiful voice a seed will come down and plant itself within you, so that you can have 100% of the fruit of the Spirit.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the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understanding" (Pr. 9:10). If you fear the Lord, you have reached the source of wisdom. Knowing the Holy One is the best thing in life. "A man who hardens his neck after much reproof will suddenly be broken beyond remedy" (Pr. 29:1). Amen! A harden heart will direct your life towards the darkest way. It will steal your soul. For a heart of stone makes you an unbeliever. "So we see that they were not able to enter because of unbelief" (Heb. 3:19).

My dear friend, do not love the world, nor things in the world. If any 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eyes,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from the world. The world is going to pass away and also its lusts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abides forever. Did you hear the Holy Spirit's voice? Did you hear His invitation? Please respond today. No one can respond for you. If you respond with your heart time will pass away quickly. This is the inspired warning for blessing or eternal curse. Jesus died for you. He gave you His life. He wants to give you eternity. He wants you to become one of God's children. God desires to reconcile with you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Please answer. Thank you Lord for giving us this inspired warning. Please let us humbly respond. Amen. 



김성관 목사

구원에 대한 잘못된 반응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오늘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급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하셨고, 자신의 앞에 서도록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모든 면에서 자재하게 지시하시고 경고하시며 보살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으며, 불평으로 일관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시편 95권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십 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하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인간의 마음 상태는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리오?” (렘 17:9).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게 합시다.

은혜에 대한 잘못된 반응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 광야를 지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그들의 역사 속에서 멀어진 놀라운 사건들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반역도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노하시기를 얼마나 더디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계속 자비와 신하심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피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끝은 목과 들같은 마음을 품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대신, 이기심에 의한 불평만을 계속적으로 분출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무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목으로의 초청

하나님께서서는 이방인인 우리들의 죄를 간파하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의 죄도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은혜와 자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7). 성경은 새로운 종류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증거하며 복음, 곧 구원의 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제공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들을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후 5:20).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19). 죄 없으신 주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만 여러분에게 삶과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교회의 식자로 우리를 초대하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이 씻기고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행 4:12).

예수의 이름만이 영생을 얻기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영원으로의 초청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에 비할 때 너무도 짧은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매우 빨리 지나갑니다. 불확실할뿐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제발 들으십시오. “너는 매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 27:1).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약 4:14).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명성과 부와 권력을 목표로 삼았습니까? 그것들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한 세속적 목표는 여러분을 오직 무덤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완고한 마음에 대한 경고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감된 경고입니다.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이 귀중한 경고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경고는 모든 신자들이 진지하게 들어야 할 근본적인 경고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생명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인 주의 말씀은 씨앗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백 배나 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 9:10). 만약 여러분이 주를 경외한다면, 여러분은 지혜의 근본에 이른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 29:1). 아멘. 똑같은 마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두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과 같은 마음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결국은 여러분을 불신자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 3:19).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께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육체와 눈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하는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 정욕과 함께 사라질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부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만일 그 부름의 음성을 듣지 못하셨다면 오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응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대로 응답한다면 시간은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과 영원한 지주에 대한 영감된 경고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촉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을 선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여, 이 영감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아프리카 R국에서 스리랑카로 사역지를 이동하며

최은아 (단기 평신도 선교사)



광활한 대지의 R국에서는 시위로 조금만 벗어나면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평선 너머에 마치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푸르른 신기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신기루를 쫓아 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일 뿐입니다. R의 무슬림들도 그들만의 신기루를 쫓아 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삶·사랑·진실이 없는 곳을 향하는 그들의 열심은 보는 이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합니다. 제가 R국에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이곳을 떠나기 때문에 R국 사람들을 볼 수 없지만,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위한 계속적인 기도만이 제게 남은 과제입니다.

나다 자매와 시라하 아줌마

나다 자매와 시라하 아줌마와의 만남도 헤어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 나님께서는 나다 자매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명의 선배 선교사들을 거쳐서 저와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R국에 주재하는 선교사가 나다 자매와 교

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나다 자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라하 아줌마는 자신은 독실한 무슬림이라며 처음에는 단기선교팀을 통해 제공된 십자가 볼펜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저의 서운한 얼굴을 보고 억지로 받기는 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라하 아줌마의 자녀 오프란과 핫산에게 종이절기와 아랍어 찬양을 가르쳐 주고 마지막으로 그 집을 나섰을 때, 그 동안 저와 정이든 시라하 아줌마와 자녀들은 눈물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사역리를 꼭 읽어 보겠다는 그녀의 마지막 말 한마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준 사역리를 본 세 번 재하던 그녀가 헤어지기 아쉬워 쉽게 한 말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바 주일학교

4월부터 소바 주일학교를 설립 수 있었고, 매주 금요일에는 주일학교 교사 제임스와 만나 주일에 전할 성경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아랍어로 요절 말씀을 미리 써서 주일에 외울 수 있도록 종이에 옮겨 적기도 했지만 부속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랍어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제임스가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듣고 말쑥을 의욕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나중에 절한 정도의 아이들이 외우는 것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연필과 공책을 사 주었다고 말을 하던 아이들이 마지막 헤어질 때는 예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역지를 옮기면서 돌아보니 마치 아이들이 중간에 버려두고 온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잠깐 애타다 했지만 그 이런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대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스리랑카로

저는 동남아시아의 인도 밑에 있는 작은 섬 스리랑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역지 이동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왜 보내시는지,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엇인가를 해놓아야 한다는 제 욕심이 저를 두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7개월 10여 일 정도 있었던 R국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스리랑카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사랑을 값있게 포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사랑을 스리랑카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관 ①

세 계 관 이란 무엇인가?

세계관이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취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가치관을 말한다. 사람의 삶은 본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은 단지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알려진다'라고 할 수 있다(수동적). 그러나 인간은 매 순간 자신의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며 살기 때문에 '알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세계관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 이성적으로 정상인 사람에게 세계관은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비정신적인 사람들도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본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살면서 이 세상의 복잡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인 생각, 그 당시의 사회에서 유행하는 가치관과 문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등, 많은 요인들이 개인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이 형성되면 그 사람은 그 세계관에 의존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간다. 예를 들어 내가 빨간 색을 좋아하는 이유라든가 어떤 동물을 좋아하는지, 또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거나, 충고를 기릴 것인가 말 것인가 등, 살면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세계관으로 인해 결정된다.

따라서 올바른 세계관을 갖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창덕 목사)

선교사 이야기

패트릭 (Patrick)

"나는 내가 했던 일들이 무너져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여 3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아일랜드의 원주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패트릭은 주후 389년, 영국 로마제국령 내의 한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이 장안저지 있지 않은 패트릭이 신대종교인이 되었을 때, 그는 아일랜드의 해적에게 끌려가 노예로 팔려 6년 동안 돼지를 치는 노예생활을 했다. 그렇지만 노예생활을 하던 중 예수님을 만난 패트릭은 "주님께서 내 목마름의 벽을 깨뜨리셨고 비록 눈물이지만 난 내 마음의 종신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노예생활과 천축과 배우기 못함을 굴복하여 저 주님으로 주님을 알았으니 그 은혜때로 더더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아버리지런 진과 안위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여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

예수님을 경험한 패트릭은 영국으로 돌아와 아일랜드에서 온 독한 사랑의 편지들 중 하나님을 믿는 환상을 보게 되고, '있는 자에게 와서 우리와 다시 한번 같이 지내라'라는 은사를 들음으로 선교의 소명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물부족은 나의 가슴을 흔적저져서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패트릭은 소명을 받았지만 신학을 공부한 후 40세가 넘어서야 아일랜드로 떠날 수가 있었다.

태양·달·바람·물 등과 온갖 종류의 정령을 믿으며 무당을 믿었던 아일랜드에도 사탄 패트릭은 왕의 대궐을 통해 고회를 세워줬다 그 때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때도 전파되지 않았던 곳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패트릭이 사역을 시작하자 15년이 지난 주후 441년에는 아일랜드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남자를 단하여 2주간의 코로로 장크트인 영도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던 패트릭은 200여개의 교회와 세우 10만여 정도의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그 당시의 부족장을 안고 그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다. 개종자들을 양육으로 훈련시켜 스스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였다. 패트릭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다.

"내가 죽기 전에 고백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물입니다."

“신혼가정부 초 세쇼”

부부가 된다는 것은 두 인격이 연합하여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번 오아는 주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신혼가정부 회원들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다.

예수님의 불임

정지현 (신혼가정부)

신혼가정부에서 가장 많은 중보기도의 축복을 받은 부부가 있다면 아마 우리 부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셨으며, 가장 힘들고 슬플 때 많은 위로를 주시고 기도 of 동역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동안 이 감사함을 생각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며 낙심과 슬픔 가운데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상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6년이 넘도록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 때문에 여러 병원을 찾아 다니며 애를 쓴 끝에 겨우 첫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도 잠시, 7주만에 유산이 되어 그후로는 좀처럼 기도도 되지 않고 주와 사람들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과 우리 부부의 기도의 결과가 이것뿐인가 하는 실망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은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에 빠졌습니니다.

이런 매일수룩 더욱 감사하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내 머리 속의 생각일 뿐 정작 내 속사람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부디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아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좀처럼 이 기도제목은 내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마음 속에서 비로소 내 믿음이 결태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직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성품과 환경에 대해 독상하게 되었고, 지금도 나와 교제하시는 살아 계신 나만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현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도 너에게 자녀 주기를 원하고 있단다”라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절교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 불임의 고통을 아시나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의 몸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여자인 제 불임의 고통을 아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모르는 버려진 영혼들을 보아라. 그들이 내 품에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아니? 나도 너와 같이 불임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단다.”

전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 하나를 갖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며 울고 계셨던 주님을, 눈물이 앞을 가리고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된 전 같은 일로 다시 울고 슬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신 사랑만큼은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을 위해 전도하러 힘쓰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마음이 소멸치 않도록 기도합니다.

만평

글·그림 : 김범헌

서거 임을
시간이 없는 당신에게...



예수님, 우리 가정 확목의 뿌리

박영미 (신혼가정부)

가을별이 참 좋다.

가을에 취해 이리저리 헤매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결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도랴게 물든 은행잎이 눈처럼 날리던 날, 장미꽃 백송이를 받고 난 그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의 아름다웠던 서약은 결혼이 현실이 되던 날부터 무너져 내렸다. 어느 때는 남편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에 밤새 울 적도 있었다.

그 무렵 남편도 이렇게 사느니 팔아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구구절절이 다가온다고 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 빼면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 오죽했겠는가? 하지만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얼마나 중요하단지! 예수님, 바로 그 분이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

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지내고 있다.

결혼 몇 달 전부터 남편과 함께 신혼가정부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공부를 해온 시간이 벌써 삼년 반이나 흘렀다. 그 시간들은 나나 남편, 우리 가정에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매주 듣는 말씀 속에서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가정을 통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되었다. 남편이 아닌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먼저 변화기를 소망했다. 내가 먼저 변화기를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남편 또한 변화하게 하셨다.

남편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한다.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남편이 의젓하게 서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한다.

반석 위에 세운 가정

문연식 이필순 (집사, 신혼가정부 교사)

위기의 가정,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우리 부부가 신혼가정부에서 교사로 봉사한 지 벌써 7년째다. 그라친다기보다는, 권사님·집사님들의 모범적인 삶과 정말 헌신적인 사랑의 봉사를 보면서 우리 부부가 먼저 변화받을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꼭지여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서까지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영적, 정신적, 물질적인 갈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가?

신혼가정부에서는 상대의 부족함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로 나를 택하셨다는 것과, 함께 산다는 것은 동 위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는 관계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의 흠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매력으로 보



인다는 것을 알도록 돕는다. 또한 새로 출발하는 가정이 말씀과 믿음·사랑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나가도록 이곳 신혼가정부에서는 첫번째를 잊지 않는 지혜로운 가정, 하나님의 가정 설계와 영성, 자녀의 차이와 부부 역할, 대화의 기법 등을 훈련하며 나눈다.

높고 높은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신혼의 여러 가정들이 서로 섬기고 이해하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가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신혼 가정부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어 안타깝다. 이제 신혼가정부를 통해 많은 가정들이 세상의 혼수보다 영적인 혼수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자녀로 양육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란다.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 토마스 아퀴나스

천사박사

"내 영혼의 속량물이 되신 당신을 영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공부했고, 깨어 있으려고 했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생을 달게 받았습니다. 당신을 기억하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13세기, 가장 프랜시스가를 죽을 때 즈음에서 또 하나의 거장 아퀴나스는 태어난다. 아퀴나스는 경건한 학자였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고 자기가 찾아낸 것을 신학으로 만들었다. 그의 손에 가면 모든 것은 정연한 논리의 형태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기도하며 명상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환상을 보았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경에 이탈리아의 몬테 카지노 근방의 한 공작의 성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황제나 왕들의 귀한 혈통이었던 것이다. 그는 황제는 물론 주위의 왕들의 친척인 셈이었다. 이미 어릴 때부터 공부에 몰두하는 정도가 깊어서, 그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중세의 그림에 사람 머리 뒤에 나타나는 금빛 동그라미가 회화까지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이 장래가 촉망되는 귀족 학자는 어느 날 놀라운 결단을 내린다. 부모와 상의 한번 없이도 미나리나 수도사가 되기로 결단한 것이다. 검은 수도사의 옷을 입고 자신의 모든 세속적인 직위를 영원히 포기한다고 선언한다. 그는 왕자 중 하나였으나 이제는 떠도는 거지 수도사가 되기로 서약을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옵나이다. 당신 사랑의 불같은 풀같은 권능으로 나를 하늘 아래 모든 것로부터 끊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신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불같은 풀같은 권능'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었다.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감정의 혼란이 없는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는 때때로 밤을 새웠고 제단앞에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면 그의 깊은 곳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마흔 여덟이 되는 겨울날 그는 예배하는 도중에 천 광홍경에 빠져 있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그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다. "이제 그것들을 보니 내가 지금까지 쓴 것들은 지푸라기나 다를 것이 없다." 그해 성탄절은 여동생의 성에서 지냈다. 그때 그가 본 환상에 대해 했던 말은 그저 '영원한 삶의 기쁨' 뿐이었다.

그는 장래의 영적 지식과 세상 지식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신학과 철학이 두 가지 열정, 곧 견인과 학문은 기막히게 연합되어 중세의 마지막 고부라 할 수 있는 그에게서 표현된다. (김기홍의 천국의 기둥) 예시)

+ 양오실

"예수께서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마 4:23).

6교구 홍동선 성도(남57세) 감상선암이 제발하여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6교구 임부연 집사(여80세) 뇌출혈로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의식이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며 몸과 마음이 힘을 얻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 경은' 성도를 소개합니다

남편과 두 딸을 둔 주부입니다. 딸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남편은 아직 믿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 계시는 이모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녀나들이 충혼교회를 모른다고 해서 역삼동으로 이사하고 되어 등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새가족부에서 배우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 애란' 성도를 소개합니다

예전에 가족들과 교회에 다닐 때는 열심히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그 후 혼자 생활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다 교회님의 인도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마음의 양식이 풍부해졌을 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하던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환영의 시간이 기억에 남고 즐거웠으며, 자상하신 담임 선생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한숙선 (새가족부 통신원)

다음주부터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가 연재됩니다
먼저 종교개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宗教改革) <Reformation>

종교개혁 운동은 16~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교회의 혁신운동을 말한다. 이 운동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세속화되고 부패함을 비판하고, 초기 교회 신앙으로의 복귀운동이 되기도 한다. 이 운동으로 마침내 프로테스탄트교회가 수립되고, 향후 1세기 동안 유럽각국에 큰 영향을 끼친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원인]

첫 번째, 교회의 부패와 타락 교회는 성직을 매매하고 속직권을 판매하는 타락의 모습을 보였다. 세금을 거두는데 소모난 요한 2세는 각종 세금을 거두어 들이므로 경제적 타락과 부패가 가속화되었고, 알렉산더 6세는 성직자의 축첩제도를 제도화하는 도덕적 타락을 보였다. 또한 레오 10세는 축죄포 판매로 루터 불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두 번째, 민족적 국가주의 발생 유럽의 많은 민족(스페인, 게르만 민족, 반달 민족 등)들로 국가가 형성되자, 각 민족들이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서민서 전체를 총괄하던 교황청에 대해서 점차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면서 교회를 위협하였다(교황의 지위를 이전 사건).

세 번째, 십자군 전쟁의 결과 십자군 전쟁의 결과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역의 진전과 문화의 교류이다.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계층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변화는 도시 시민들이 기존의 세력에 저항을 하게 되었다.

네 번째, 교회 계승주의의 관습 십월 14-15세기까지 교황청의 아비뇽 이전사건, 서방의 대분열, 문명부흥시대의 확산이라는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교황청의 계승주의의 관습(세례)가 쇠퇴하였다.

다섯 번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과 중세시대의 사상적 지주를 이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실재론'이 욕망의 '유령론'에 의해 붕괴되었다.

[결과]

다음으로는 종교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독일의 루터: 종교개혁운동의 횡령은 1517년 10월 31일 아우구스티누스회의의 수도사이면서 신학교수인 루터가 (권위(免罪符)에 관한 95개조 논제)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대학의 성(敕)교회 청문회게 게시함으로써 일러졌다. 이 항의문은 마인츠의 대주교(大主教) 교회와 알브레히트에게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판매한 면죄부(面)에 대해 루터가 그 성서적(聖書的) 효과를 신학적으로 문제삼은 것이었다. 이로써 루터 자신의 예상을 넘어 유럽 전역에 파급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다.
- 스위스의 츠빙글리: 츠빙글리에게서 시작된 스위스의 개혁운동은 성직자의 결혼, 육식의 자유, 화상(火葬) 철폐 등 후대니즘적 동기에 바탕을 둔 가톨릭적 미신(迷信) 운동으로 일어났다. 또한 그는 성지순례(聖地巡禮)나 면죄부 판매 등 부패상을 보고,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통감하였다. 츠빙글리의 주도로 개혁이 이루어진 교회의 특색은 성서주의(聖書主義)와 간소한 예배와 성례전의 기념성을 주장하였다.
- 프랑스의 칼뱅: 프랑스의 종교개혁은 르포르머, 파렐 등의 인문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의 개혁운동은 칼뱅에게 계승되었는데, 이 칼뱅을 통해 세워진 제네바 교회는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지도하게 된다. 칼뱅은 루터의 의인론(義理論)적 믿음으로만 위로부터의 주장을 계승하였으며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할 것(실천주의의)을 강조한 점에서는 루터와 다른 특색을 지녔다.

[역사적 의미]

종교개혁을 루터의 '하나님의 뜻의 발견'(이신전의 사상)에서 비롯되는 그리스도교의 혁신운동이었으나, 그 영역에 있어서 단지 신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근대 세계와 근대인이 탄생하였다.

특히 이 교회에 끼인 영향을 살펴보면 성경의 근본사상으로 환원-율법적 종교에서 복음적 종교로, 의식적 계층에서 제형적 종교로, 교권주의에서 자유주의로-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특별히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로마교회와 다른 채 신운동들 촉진시키기도 하였으나 그 개혁 가운데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났다. 신교 안교 파가 분열되었고 전쟁이 유발되어 인명피해와 경제적 파탄을 몰고 갔다. (김영택 목사)

다음주일 관음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초기 장로교 천송기(천선사-1905년)에 처음 수록된 선교사 밀로어(F.S. Miller) 목사의 한국어 창작 천송가로서 '반석 위의 집(The house on the rock)'이라는 마태복음 7장 24-27절에 근거했다. 밀로어 선교사는 초기 한국 천송가(천송가) 번역자요, 편집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 천송가는 미국의 대표적 천송가 작곡가인 블리스(P.P. Bliss, 1838~1876)의 곡이다.

- 1절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두고 집을 지을 길아 비가 오고 물 내려 바람 부딪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 후렴 집 짓고 집 짓네 우리 집 짓네
- 민세 살신 위애다 우리 집 짓네
- 2절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두고 집을 지을 길아 비가 오고 물 내려 바람 부딪쳐도 모래 위에 세운 집 깨져 무너지네
- 3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터두고 집 짓네 우리 구주 오소서 지는 성을 줄 세우고 공적 따르라 영성 살릴 우리

이 찬송은 8분 요새가 한 마디에 6개가 들어있는 6/8 박자의 곡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디당 2박자의 곡으로 불려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각 단의 마지막 소절은 8분 율포 하나와 4분 율포 둘로 되어 있지만(실제로는 당김음과 같은 역할을 함) 너무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불려야 할 것이다. (천영환원회)

만나려 할 때에 계산다

문 상 호 (소년부 소망3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친구들이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마음을 열면 쉬운 일이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루에 한번씩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것이다. 일년에 한번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 행복을 얻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을 알지 못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예수님께 마음을 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만나려고만 한다면 만날 수 있는 분이고, 만나려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분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수많은 무리들과(이들때면 이슬람교도들처럼) 예수님을 형식적으로만 믿지만 진정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다.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나는 올해 1학년까지만 해도 학교가 아주 싫었다. 친구들이 날 놀렸기 때문이다. 친절적으로 날 놀리는 것을 못 참는 성격 때문에 자주 우리 가족의 골

치를 썩었다. 처음 예수님과 만난 것은 올해 1학기가 끝난 후 여름성경학교에서였다. 어머님께서 이번엔 내 고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하셔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여름성경학교의 부흥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기도할 때 나는 물론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친구들이 그때 날 보고 '만남하지도 않을 까?' 하면서 바라보았지만, 난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느낌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학교를 즐겁게 다니다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만났을 때 나는 아이들을 꼭 들어주시는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꼭 한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사람들의 많은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며칠 전에는 미국이 테러를 당했다. 이 둘의 조상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건너온 종교도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었는데 현재의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강한 힘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께서서 원한 것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미국을 강하게 만든 군대와 미국이 가진 지식보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던 정신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고, 예수님의 법을 지키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즐거운 초등부 사역

김 윤 식 (전도사, 초등부 지도)

대학부에서 부지도로 일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부서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초등부에 오면서 가장 소원이었던 것은 초등부 친구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것,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에화를 사용하여 재미있게 설교하였 습니다. 그러나 부장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만 설명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제는 성경 이야기만 하여도 무조건 재미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으로 은혜받게 해 보리라고 생각하기 에, 어린이들을 집중시키려고 더 힘있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도록 바깥감 있게 설교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린이들의 시선을 모으는 데 사용했던 것은 성경 밖의 에화이지만, 지금은 성경 자체가 그대로 사용 됩니다. 그렇게 성경만 가지고 매주 25분 가량 설교를 하는데도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 응답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어린이들이 예배를 마치는 찬송을 크게 열심히 부른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휘자님 이 예배 마지막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 였는데, 이제는 어린이들만 부릅니다. 지휘자님의 목소리가 과분하기 때문이

니다. 이것은 두 번째 소원의 응답입니다.

마지막 소원은 어린이들이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좀처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 등부 선생님과 많이 기도하고 준비한 여름성경학교에서 부흥회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은 자발적으로 주재 찬송인 185장의 율 동을 만들어서 은혜롭게 찬양하였습니다. 두 시간 동안 부흥회를 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는 데 영아부실이 떠 나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어 린이들이 열심히 기도해 보고 있다는 모습에 사랑을 느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45명의 어린이들이 좋았던 프로그램 중에서도 부흥회에 동 그라미를 한 것을 보고, 숫자가 많지 않 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고 확신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결코 어른에 비해 하나님 을 아는 일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확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초등부 어린이들로부터 영광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초등부의 부족 함이 채워지며 더 큰 은사를 얻히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도구를 사용되던가 가까운 미래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초등부에 일어나게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생

다니엘(Daniel)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③

또한 다니엘서를 읽으려는 '꿈'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꿈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 있습니다. 아담은 꿈을 통해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다리를 하나님과의 사자가 오르막내리락 하는 경로를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인약을 받기도 합니다(창 28:12-15).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요셉과 관련된 사건의 흐름이 꿈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감옥에서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삿 7:13-15). 다니엘은 이방 왕국과 자신의 꿈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요엘 역시 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예언을 하시는 데(요엘 2:28). 이 예언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있어서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에 대한 오해를 꿈을 통해 서 이해하게 됩니다(마 1:20). 요세과 마리아 두 사람은 꿈을 통해서 예수를 죽여서는 해로운 음모를 깨닫게 됩니다(마 2:12). 그리고 꿈을 통해서 예수를 떠나 갈릴리로 가라는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마 2:22).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릴 때와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받습니다(마 27:19).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 내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열거한 꿈들은 인간이 깊은 잠을 자면서 꾸는 꿈과는 비 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 군중의 역사'를 간략하게 참고하시면 아나니는 꿈 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꿈에 관해서는 기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계시임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에 읽으시기 전에 '그대 군중의 역사'를 간략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에서 로마시대에 이르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로마시대이기 때문에 그대 군중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시고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메시야 탄생에 대한 성경 말씀이 더욱 절실히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확한 성취를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신이신 이념이시고 인자가 아니라 신이신 분이요 하나님이요이다. 이제 그 말씀하신 법을 행히 읽으시며 단지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민 23:19). 이후부터 이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 개인의 삶과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현 목사·출판국 지도)

내려 그리스도의 편지



인문 스터지가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불꽃낸다.

사탕과 복음

예배시간이면 막대사탕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안내원활동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것은 사탕은 한 시간 가량의 예배시간 동안 어린 예배의 의미를 알기에 는 어려, 울거나 떠드는 아이들을 평온하게 하는 좋은 친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한 다.

자주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나이에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 요금소 를 빠져 나올 때면, 통행권과 통행료를 내고 난 후에, 그 손을 그대로 내밀고 몇 초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잠시 뒤에 내 손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것을 내 던졌가 내 손이 기때없이 영수증이 아닌 다른 것이 쥐어지는 갑작을 느낀 적이 있었다. 놀심과 매우 위두하는 바람에 통행권을 받았다. 다른 차장이 뒤에 기다리고 있었기에 할 급히 요금소를 빠져나와 원소를 펼쳐보아 박사방이 들어있었다. 고맙다는 말도 전하지 못 하고 받은 사탕이었지만, 하루 종일 그 사탕 하로로 가슴 똥속이 한없이 따뜻한 날이었다. 대학원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어느 나이가 많지 않은 전도사님은 항상 주머니에 사탕 몇 알 을 넣고 다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수업시간마다, 대중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의 열에 아홉 되었을 때, 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교회에서 모르는 성도가 미소 있었을 때의 서먹함이 싫어 준비한 사탕 하나를 슬쩍 건넸다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고하고 그렇게 계속 만나는 사탕과의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사탕이 갖고 있는 능력 가운데는 사탕을 나눠주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을을 본다. 그리고 나라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사탕과 같은 것을 전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

났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사랑과 기쁨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의 사랑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 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요일 1:3-4)

국내외의 선교에서도 사랑은 사랑을 가져다 주는 좋은 도구로 사용된다. 사랑의 단맛 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랑을 전하는 손길 속에 깊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진 정한 복음을 깨닫고 그 간절과 감동이 마음 가득 넘쳐 주재자를 가져오는 기쁨으로 이웃에게 전함만, 사람이 그러할수록 복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지를 상상해 본 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또한 어느 누군가에게 중한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한다.

(박철중 전도사)

교 회 소 식

일 령

구제현금 안내
다용수업(30%) 1부~5부 예제 시 있습니다.
기도와 장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 일

1. 장로 필요사별기도회
일시: 24일(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회교사별기도회
일시: 25일(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남녀전도부 할례회
일시: 오늘 15:15
장소: 관전빌
4. 군전도부 할례회
일시: 28일(목) 17:30
장소: 베다니홀
5. 고전전도부 할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예수사랑가
6. 전사 4회 할례회
일시: 25일(수) 오후 3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남녀전도

1. 바울 25회 할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베다니홀 열 세가족부사실
2. 바울 25회 할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복자전 지하2층
3. 바울 15회 할례회
일시: 오늘 교육교당 후
장소: 베다니홀
4. 바울 7회 할례회
일시: 27일(목) 19:30
장소: 관전빌 상양실
5. 바울 15회 할례회
일시: 19일 (목) 16:00
장소: 관전빌 2층상도 입구

6. 연합 연합체목회
일시: 10월 13일(토) 14:00
장소: 한대교회학교
7. 오한 15회 할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베다니
8. 오한 17회 할례회
일시: 오늘 19:00
장소: 이흥동 집사대
(이흥동 한양강315-60)
9. 예스 16회 할례회
일시: 오늘 교육교당 후
장소: 교육관 41호

발 세

1. 신약외교집사
(전속성 성도의 남편, 8년 6개월 5주)
2. 13일 밤새, 15일 장례
2. 광명교회 은퇴집사
(영철 성도 오신 전파와 성도의 시모,
12주 2주(목) / 18일 밤새, 20일 장례
3. 최현성 성도
(신현호 집사 장인, 최희숙 집사의 부친, 10주 2주 4주) / 18일 밤새, 20일 장례

결 혼

1. 정찬이 군(영광) 목사, 박순례 권사
의 아들, 황상호(68)과 임정민 양씨
김은 집사, 최영성 집사의 딸, 13교
구 / 25일(토) 12:30 관전빌

주 소 변경

1. 오진국 장로
장기도 후원시 구정원 마복리 617번
계 무명마을 LG(1103-1801 ☎ 274-7849)

6교구 대산지 초창 전도전지

일시: 10월 13일(토) 17:00
장소: 안나홀

2001년 하반기 정기집사 실시

금년도 하반기 정기집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각 부서의 회계는 아래와 같이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10-11월 중에 집사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간: 2001년 1월-9월
2. 대상기관: 각 위원회 전도회, 경찰·교정·실업인·미성·학원 등 특수 전도회는 본 감사를 수집함(주)
3. 제출서류: 시산표(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시산표),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등 증빙철, 사제 헌금 또는 예금통장잔액 포함
4. 감사실시기간: 2001년 10월부터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5. 감사실시장소: 제1교육관 208호 감사위원회의실 (H354)

논산원로소 전도세례식 출발시간 변경

교회에서 08:00 출발을 07:00로 변경합니다.

청송 제2교도소 특별 전도집회

일시: 25일(화)

선교위원회 전체 기도회

일시: 27일(목) 18:00
대상: 2001년 여름단기선교 참가자 전원 (필히 참석)
선교수감성 및 STAFF전원, 외선부 조 전원, 선교위원회 위원 및 실행위원회 전원, 그 동안 단기선교에 동참한 모든 성도 및 선교 관심자
장소: 안나홀 / 베다니홀

충원복지지역주인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1. 스포츠댄스
시 간: 매주 화요일 10:00-11:30
수강료: 6만원(3개월 과정)
개강일: 10월 9일(화)
2. 실용영어
시 간: 매주 수요일 09:30-11:30, 13:00-15:00, 19:00-21:00(아간반)
수강료: 3만원(3개월 과정), 아간반 6만원
개강일: 10월 10일(수)
3. 안락사 길라잡이
시 간: 매주 목요일 11:00-12:30, 총 5회
수강료: 무료
개강일: 10월 11일(목)
※ 문의: 충원복지지원(☎564-4885 내선 3번)

교회요시는길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 | | | |
|--------------|--------------|--------------|--------------|
| 김의철
신교목회장 | 조진국
신교목회장 | 김은호
신교목회장 | 노경현
신교목회장 |
| 오진국
신교목회장 | 이병환
신교목회장 | 윤인환
신교목회장 | 최대현
신교목회장 |
| 염필철
신교목회장 | 강종오
신교목회장 | 오정현
신교목회장 | 이 훈
신교목회장 |
| 남진수
신교목회장 | 서동우
신교목회장 | 정승준
신교목회장 | 김영길
신교목회장 |
| 문용수
신교목회장 | 조인재
신교목회장 | 김종구
신교목회장 | 최부귀
신교목회장 |
| 김진채
신교목회장 | 차신동
신교목회장 | 김재명
신교목회장 | 이종성
신교목회장 |
| 박명식
신교목회장 | 김광남
신교목회장 | 이종성
신교목회장 | 윤성철
신교목회장 |
| 이하영
신교목회장 | 박민진
신교목회장 | 김인관
신교목회장 | 이병욱
신교목회장 |
| 신동국
신교목회장 | 최정환
신교목회장 | 이종성
신교목회장 | 이종성
신교목회장 |
| 최기홍
신교목회장 | 이강재
신교목회장 | 전종용
신교목회장 | 전종필
신교목회장 |
| 이정우
신교목회장 | 김종환
신교목회장 | 황영일
신교목회장 | 손 철
신교목회장 |
| 한승규
신교목회장 | 김정우
신교목회장 | 장동식
신교목회장 | 김환기
신교목회장 |
| 원종필
신교목회장 | 이현우
신교목회장 | 안동현
신교목회장 | 황의만
신교목회장 |
| 김규형
신교목회장 | 최학덕
신교목회장 | 이계인
신교목회장 | 박덕영
신교목회장 |
| 이대식
신교목회장 | 정명두
신교목회장 | 박용규
신교목회장 | 권명욱
신교목회장 |
| 조종환
신교목회장 | 배준식
신교목회장 | 김영달
신교목회장 | 이철호
신교목회장 |
| 박찬섭
신교목회장 | | | |

■ 부목사

- | | | | |
|--------------|--------------|--------------|--------------|
| 이홍성
신교목회장 | 정현인
신교목회장 | 김동하
신교목회장 | 차병준
신교목회장 |
| 김병태
신교목회장 | 서정진
신교목회장 | 정병성
신교목회장 | 이준경
신교목회장 |
| 여성기
신교목회장 | 류병희
신교목회장 | 노경목
신교목회장 | 이종철
신교목회장 |
| 이수근
신교목회장 | 김교성
신교목회장 | 송길환
신교목회장 | 이수근
신교목회장 |
| 안종원
신교목회장 | 박영문
신교목회장 | 정진호
신교목회장 | 김종우
신교목회장 |
| 이성욱
신교목회장 | 고광환
신교목회장 | 신성식
신교목회장 | |
- 찬양감독 장영규
- 김도사 김영기 2부부
- 여전도사
- | | | | | |
|--------------|--------------|--------------|--------------|--------------|
| 전연희
신교목회장 | 김경자
신교목회장 | 송향하
신교목회장 | 신동하
신교목회장 | 윤인숙
신교목회장 |
| 김옥은
신교목회장 | 현영진
신교목회장 | 김정희
신교목회장 | 홍순애
신교목회장 | 이우진
신교목회장 |
| 김자자
신교목회장 | 안태순
신교목회장 | 최희정
신교목회장 | 박명자
신교목회장 | 김정현
신교목회장 |
| 조경자
신교목회장 | 장덕희
신교목회장 | 김정자
신교목회장 | 장영희
신교목회장 | 최문실
신교목회장 |
- 교정전도사 박영덕
- 선교과
- | | | | |
|--------------|--------------|--------------|--------------|
| 장은희
신교목회장 | 권영일
신교목회장 | 추은희
신교목회장 | 김요섭
신교목회장 |
| 이소영
신교목회장 | 이소영
신교목회장 | 이소영
신교목회장 | 이소영
신교목회장 |
| 이소영
신교목회장 | 이소영
신교목회장 | 이소영
신교목회장 | 이소영
신교목회장 |
- 협력선교사
- | | |
|--------------|--------------|
| 최현성
신교목회장 | 김기영
신교목회장 |
|--------------|--------------|

세 · 가 · 족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762	고인애	5	소양부	김남연(2)	770	최은아	19	청년1부	
763	전성일	7	청년2부		771	한부영	19	청년1부	
764	노영희	15	청년2	이복교(2)	772	정환이	19	청년1부	
765	박서희	19	청년2		773	조성모	2	청년2	이자혜(6)
766	변서훈	19	청년1부	김은철(13)	774	오미란	19	청년1부	
767	송기영	19	청년1부	최현숙(17)	775	박대권	19	청년1부	
768	전병하	19	청년1부	정순철(11)	776	오현아	19	대학부	
769	박이나	11	청년2부	권기순(11)					

충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3호 새가족 등록표 오시기 바랍니다.